

부모-자녀 친밀·지지 관계, 교사의 정서적 지지가 아동의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효과: 아동의 정서조절 매개효과 검증*

최 자 은¹⁾

대구가톨릭대학교 아동학과

이 연구의 목적은 부모-자녀 친밀·지지 관계, 교사의 정서적 지지, 아동의 정서조절, 아동의 자아탄력성 간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고 아동의 정서조절이 부모-자녀 친밀·지지 관계, 교사의 정서적 지지와 아동의 자아탄력성 사이를 매개하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D시의 초등학교 5-6학년 남녀 아동 669명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질문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4.0, AMOS 24.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고 SRMR, RMSEA, CFI, TLI를 통해 모델부합도를 평가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정서조절은 아동의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쳤다. 둘째, 부모-자녀 친밀·지지 관계와 교사의 정서적 지지는 아동의 정서조절에 직접영향을 미쳤다. 셋째, 아동의 정서조절은 부모-자녀 친밀·지지 관계와 아동의 자아탄력성 사이를 매개하였다. 넷째, 아동의 정서조절은 교사의 정서적 지지와 아동의 자아탄력성 사이를 매개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아동의 정서조절이 아동의 자아탄력성 증진에 있어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 변인이며 부모-자녀 친밀·지지 관계와 교사의 정서적 지지는 아동의 정서조절과 자아탄력성과 같은 개인역량 증진의 기본이 됨을 확인하였다.

주요어 : 아동의 자아탄력성, 부모-자녀 친밀·지지 관계, 교사의 정서적 지지, 아동의 정서조절

* 본 연구는 2018년 한국인간발달학회 추계학술대회 포스터 발표 논문임.

1) 교신저자 : 대구가톨릭대학교 아동학과 강의전담교수 (E-mail : ffomee@hanmail.net)

I. 서론

한국 사회 아동들은 물리적인 풍요로움에 비해 정서적인 안녕감은 상당히 빈곤한 수준이다. 크고 작은 경쟁 속에서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와 성취압력, 과다경쟁 등으로 인해 우울, 불안, 학교 부적응, 비행 등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연구들도 활성화 되어 왔다. 그런데 긍정심리학이 대두 된 이래 인간의 부정적이고 병리적인 연구에서 탈피하여 인간 내면의 긍정적인 자질을 바탕으로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으로 학문적 관심이 변화하고 있다. 이런 변화에 맞추어 아동연구 또한 부정정서와 정신 병리에 편향되었던 관점을 바꾸고 긍정적 역량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지속되어 일상에서 경험하게 되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좀 더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해야 한다. 탄력성은 질병, 우울, 충격, 역경으로부터 빨리 회복하는 힘을 말하며, 자아탄력성은 체계의 유지, 증진을 위해서 환경적 맥락이 필요로 하는 자기통제 수준을 조절하는 역동적인 능력이다(Block & Klemen, 1996). 또한 자아탄력성은 부정적이고 병리적인 심리적 문제들을 상쇄시킬 긍정적 심리자본 중 하나이며 환경과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변화할 수 있는 적응적 자원(Block & Block, 1980)이다. 따라서 효율적으로 발휘된 자아탄력성은 아동의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효과를 가지고(박영아, 2013), 아동의 생활만족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김세영, 2014). 또한 자아탄력성은 학교생활 적응의 보호요인(이영주, 류진아, 2013)으로 작용한다.

아동의 탄력성과 연관된 요인에 대해 연구한 연구자들은 탄력성과 연관된 요인으로 정서와 충동을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 등의 개인요인과 부모나 일차 양육자와의 친밀한 관계, 따뜻하고 지지적인 양육 등의 가족요인, 그리고 학교에서의 좋은 경험이나 이웃이나 친척이 아닌 사람들의 지지 등의 지역사회 요인이 있다고 설명한다(Daniel & Wassell, 2008). 인간은 개인이 가지고 태어난 특성을 바탕으로 가족요인, 그리고 사회의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 성장한다. 문수백 (2009) 또한 연구설계 속의 원인변인들을 선정할 때는 항상 개인차 변인과 환경 변인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아탄력성을 중심으로 개인요인, 가족요인, 지역사회 요인을 모두 고려하여 변인을 선정하고자 한다.

Baumgardner와 Crothers(2010)는 정상적이고 일상적인 탄력성의 기반을 강조하면서 그 기반으로서 심리적 자원뿐만 아니라 친밀감이나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타인들과의 깊이 있는 관계가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생애 전반에 걸쳐 부모는 자녀에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요인이며 영향을 주고받는 상호적 관계이며 부모의 따뜻함과 다정함, 자녀에 대한 수용도는 자녀의 자아탄력성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이은미, 박인전, 2002). 또한 유능한 성인과 긍정적인 상호관계를 가질 때 아동은 만성적인 역경에서 성공적으로 회복한다. 특히 지지적이고 안정된 가정 분위기에서 부모와 친밀한 관계를 가진 아동들이 탄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는 연구결과(Masten, Best, & Garmezy, 1990)는 부모와의 친밀하고 지지적

인 관계가 아동의 자아탄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예측할 수 있다.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보호요인을 확인한 Emery와 Forehand(1994)의 연구에서는 사회적인 보호요인의 하나로 지지적인 사회적 관계망을 제시하였다. 교사의 지지는 아동의 탄력성과 관계있는 학교 요인으로 언급되고 있다(Garmezy, 1993). 또한 탄력성의 대표적인 연구인 Kauai연구결과에서 탄력적인 아동들이 공통적으로 1명 이상의 성인과 근접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가족 외에 정서적 지지를 주는 사람이 있었다는 연구결과(Werner, 1993)를 통해 아동의 자아탄력성에 교사의 정서적 지지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예측할 수 있다.

자기조절은 탄력성에 대한 가장 강력한 예언자이며(Buckner, Mezzacappa, & Beardslee, 2003), 정서적인 자기조절은 탄력적인 삶에서 중요한 요소이다(Baumgardner & Crothers, 2010). 정서조절 능력은 의식적인 통제 과정으로서 특정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자신의 기분이나 감정 상태를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통제하고 조절하여 적응적으로 이끌어 내는 능력이다(곽윤정, 1997; 문용린, 1996). 이러한 기분이나 감정 조절에 대한 연구는 인간이 가진 긍정정서를 극대화 하고 부정적 정서는 상쇄하려는 심리학적 가정에서 출발하였고, 자아탄력성은 스트레스를 주는 생활사건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와 관련이 있으므로(Baumgardner & Crothers, 2010), 부정적 정서 상황을 통제하고 긍정적으로 조율하는 정서조절 능력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아탄력성 발휘에 유연하게 작용할 것이다. 또한 자아탄력성은 내·외적

스트레스나 역경에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게 하는 일종의 성격유형으로서 상황에 맞추어 긴장상태에서 평정심을 유지하거나 혹은 충동통제를 약화, 또는 강화시키는 조절 능력(Block & Klemen, 1996)임을 고려해 볼 때, 정서조절은 자아탄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예측할 수 있다.

정태희(2001)는 정서조절과 자아탄력성에 관한 여러 연구들의 개관을 통해 정서조절은 후속적 스트레스와 부정 정서를 감소시키기 위한 상황의 관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확장 되며 이는 아동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부모의 직접적 관리에서 벗어나 스스로 자신의 상황을 관리하도록 기대된다고 설명하면서 정서가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심적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정서적 과정을 기능적 조절자로 간주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정서조절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학령기 아동의 정서조절은 부모나 교사와 같은 환경요인에 직접 영향을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최자은, 문수백, 2016).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이미 만들어진 근원적 관계이고, 교사와 아동의 관계는 제도적·임의적으로 형성되지만 아동의 관점에서 가장 근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성인인 부모와 교사는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에 중요한 영향력을 가진다. 가정환경은 아동의 정서발달에 있어 중요한 환경 변인이며 일차적인 정서지능이 형성되는 기반이다(Goleman, 1995). 부모-자녀 간의 관계가 원만한 가정에서 아동의 정서적 기술도 발달할 수 있다(Salovey & Mayer, 1996). 학령기 아동의 경우 부모-자녀 사이의 긍정적 교류와 관계 형성이 아동의 정서 조절에 중요한 요인

이며 출생 후부터 형성되어진 부모와의 관계는 아동의 정서조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최자은, 문수백, 2016). 교사와 아동간의 관계에서도 긍정적으로 정서적 관계를 맺고 있는 아동들은 자기조절능력과 스트레스 대처능력이 높다(Ryan et al., 1994). 교사의 정서적 지지는 교사로부터의 신뢰, 애정, 감정이입, 친밀감을 근간으로 하며 자신이 돌봄과 사랑을 받고 있다고 믿게 하는 정보이다(박지원, 1985). 제2의 가정이라고 할 수 있는 학교환경에서 부모 다음으로 아동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성인은 교사이다. 따라서 아동은 교사로부터 정서적으로 지지 받고 있다고 자각할 때, 교사의 정서적 지지를 통해 자신의 정서를 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조절할 수 있을 것이다. 전술한바와 같이 정서조절은 부모-자녀 친밀·지지 관계와 교사의 정서적 지지로부터는 영향을 받고, 자아탄력성에는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볼 때 정서조절은 부모-자녀 친밀·지지 관계와 자아탄력성 사이를, 그리고 교사의 정서적 지지와 자아탄력성 사이를 매개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연구된 변인간의 관계나 예측 설명량을 주요목적으로 하는 상관연구와 회귀연구를 넘어서 측정의 오차를 해결한 구조회귀모델을 설정하여 기존 연구에서 밝히기 힘들었던 각 변인들 간의 직접적인 인과 관계과 함께 매개변인을 확인할 것이다. 이러한 구조모델을 통해 아동의 정서조절을 중심으로 영향을 주고 받는 변인들을 확인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아동의 자아탄력성을 높이는 실제적 방안 제시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선정된 변인들 간의 상호관계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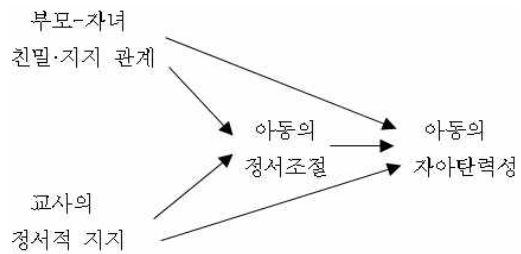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델

바탕으로 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으며 연구모델은 그림 1과 같다.

연구문제 1. 부모-자녀 친밀·지지 관계, 교사의 정서적 지지, 아동의 정서조절은 아동의 자아 탄력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부모-자녀 친밀·지지 관계, 교사의 정서적 지지는 아동의 정서조절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3. 아동의 정서조절은 부모-자녀 친밀·지지 관계와 아동의 자아탄력성 사이를 매개할 것인가?

연구문제 4. 아동의 정서조절은 교사의 정서적 지지와 아동의 자아탄력성 사이를 매개할 것인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통계적 모델의 추정 모수치의 수를 고려하여 1:20 비율에 따라(문수백, 2009) D시의 2개 초등학교 5-6학년에 재학 중인 학령기 아동 669명(여학생 327명, 남학생 342명)

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학령기 5- 6학년 아동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이 시기는 인간발달단계상 논리적, 추상적인 사고가 가능하여 자신과 환경에 대한 명료한 평가가 가능하고 객관적인 자아지각으로 자기의 정서와 느낌을 표현할 수 있는 연령이기 때문이다 (Montemayor & Eisen, 1977).

2. 측정도구

자아탄력성 척도

자아탄력성 척도는 Bolck와 Klemen(1996)의 자아탄력성 척도(Ego-Resiliency Scale: ER89)를 사용하였다. ER은 단일요인으로 구성된 척도이므로 문항 꾸러미화 방법을 통해 지표변수들을 구성하였다. 총 14문항이며 하위요인은 탄력성 1(7문항), 탄력성 2(7문항)이다. 문항은 ‘나는 다른 사람에게 화가 나도 상당히 빨리 괜찮아진다.’ ‘나는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는 편이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의 응답방식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항상 그렇다’(5점)까지 Likert식 5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자아탄력성의 구성개념 신뢰도는 CFA 기반 신뢰도 추정방법(Raykov, 2001)으로 추정한 결과 .84였고, 하위요인별 Cronbach’s α 계수는 탄력성1은 .78, 탄력성2는 .75였다.

부모-자녀 친밀·지지 관계

부모-자녀 친밀·지지 관계의 하위요인은 부 친밀·지지 관계와 모 친밀·지지 관계이며, 이미경과 김성희(2011)의 ‘초등학생 부모-자녀 관계 척도 개발’ 하위요인 중 친밀·지

지 관계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20문항이며 하위요인은 부 친밀·지지 관계(10문항)와 모 친밀·지지 관계(10문항)이다. 요인별 문항은 ‘나는 아버지(어머니)와 친구처럼 지낸다.’ ‘아버지(어머니)는 나와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낸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의 응답방식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항상 그렇다’(5점)까지 Likert식 5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와 친밀·지지 관계가 안정적으로 형성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부모-자녀 친밀·지지 관계의 구성개념 신뢰도는 CFA 기반 신뢰도 추정방법(Raykov, 2001)으로 추정한 결과 .87이었고, 하위요인별 Cronbach’s α 계수는 부 친밀·지지 관계와 모 친밀·지지 관계 각각 .93이었다.

교사의 정서적 지지

교사의 정서적 지지는 단일요인으로 구성된 척도이므로 문항꾸러미화 방법을 통해 지표변수들을 구성하였고 박지원(1985)의 ‘사회적 지지 척도개발을 위한 일 연구’ 중 교사의 정서적 지지 부분을 학령기 아동이 이해하기 쉽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총 7문항이며 하위요인은 지지 1(3문항), 지지 2(4문항)이다. 문항은 ‘선생님은 나를 사랑하는 것 같다.’ ‘선생님과 있으면 편하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의 응답방식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항상 그렇다’(5점)까지 Likert식 5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이 지각는 교사의 정서적 지지가 높음을 의미한다. 교사의 정서적 지지의 구성개념 신뢰도는 CFA 기반 신뢰도 추정방법(Raykov, 2001)으로 추정한 결과 .91이었고, 하위요인별 Cronbach’s α 계수는

지지1은 .84, 지지2는 .89였다.

아동의 정서조절

아동의 정서조절 하위요인은 자기조절과 타인조절이며 문용린(1996)의 ‘한국학생들의 정서지능 측정도구’에 기초하여 개발한 곽윤정(1997)의 ‘정서지능의 발달 경향성과 구인타당성에 관한 연구’의 하위요인 중 정서조절 부분을 사용하였다. 총 15문항이며 하위요인은 자기조절(8문항)과 타인조절(7문항)이다. 문항은 ‘나는 평소에 기분을 좋게 가지려고 애쓰는 편이다.’ ‘나는 친구의 기분이 나빠 보일 때는 조심스럽게 행동한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의 응답방식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항상 그렇다’(5점)까지 Likert식 5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의 정서조절이 안정적임을 의미한다. 정서조절의 구성개념 신뢰도는 CFA 기반 신뢰도 추정방법(Raykov, 2001)으로 추정한 결과 .80이었고, 하위요인별 Cronbach's α 계수는 자기조절은 .84, 타인조절은 .81로 나타났다.

3. 통계적 모델 및 자료 분석

부모-자녀 친밀·지지 관계, 교사의 정서적 지지와 자아탄력성과의 관계에서 정서조절의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4개의 측정모델과 1개의 구조모델로 이루어진 통계적 모델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변인 중 교사의 정서적 지지와 아동의 자아탄력성은 단일요인이므로 지표변수의 측정능력을 높이고 모델부합도를 높이기 위하여 요인부하량 기반 문항 배치법으로 문항꾸러미화 하여 지표변수로 사

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4.0과 AMOS 24.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측정모델과 구조회귀모델의 부합도는 χ^2 , NC, RMSEA, TLI, CFI, SRMR을 통해 평가하였고, 유의수준 .05에서 모수치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측정변인 간의 상호상관행렬 및 기술 통계치

측정변인 간의 상호상관행렬과 각 측정변인의 평균, 표준편차 및 왜도와 첨도는 표 1과 같다.

2. 측정모델의 부합도 및 모수치 추정

측정모델의 부합도를 추정한 결과 모든 부합도 지수가 양호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측정모델의 모수치를 추정하였다. 그 결과 그림 2와 같이 잠재변인들 간의 상관계수는 모두 .85이하인 것으로 나타났고, 각 잠재변인에 대한 측정변인의 요인부하량은 .50이상 되는 것으로 나타나 변별타당도와 수렴타당도 모두를 충족하였다.

3. 초기연구모델의 부합도 및 모수치 추정

본 연구의 측정모델과 구조모델 모두 추정 가능한 모델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최대우도추정법을 통해 초기연구모델의 부합도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부합도 지수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 그림 3과 같이 구조회귀모델의 모수치

표 1. 측정변인 간의 상호상관행렬표 및 기술통계치

($N = 669$)

측정변인	부	모	지지1	지지2	자기조절	타인조절	탄력성1	탄력성2
부	1.00							
모	.78*	1.00						
지지1	.30*	.31*	1.00					
지지2	.30*	.30*	.84*	1.00				
자기조절	.34*	.37*	.30*	.31*	1.00			
타인조절	.36*	.36*	.38*	.37*	.65*	1.00		
탄력성1	.33*	.30*	.27*	.26*	.54*	.55*	1.00	
탄력성2	.37*	.36*	.35*	.33*	.58*	.59*	.74*	1.00
사 례 수	669	669	669	669	669	669	669	669
평 균	39.57	41.45	10.34	14.70	28.05	31.69	26.53	26.54
표준편차	8.39	7.90	2.87	3.54	4.80	4.90	4.38	4.75
왜 도	-.96	-1.40	-.33	-.47	-.52	-.33	-.05	-.23
침 도	.73	2.54	-.15	.18	.26	.22	.30	-.15

* $p <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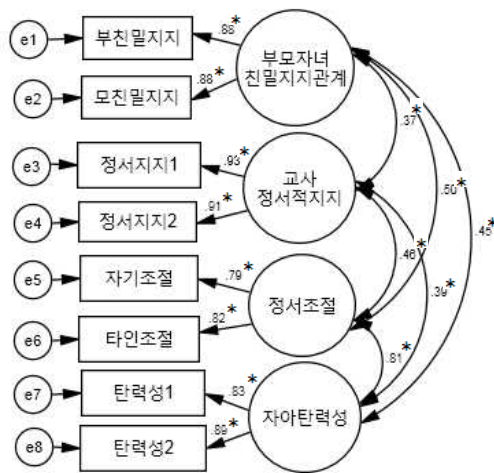


그림 2. 측정모델의 모수치 추정 결과

* $p <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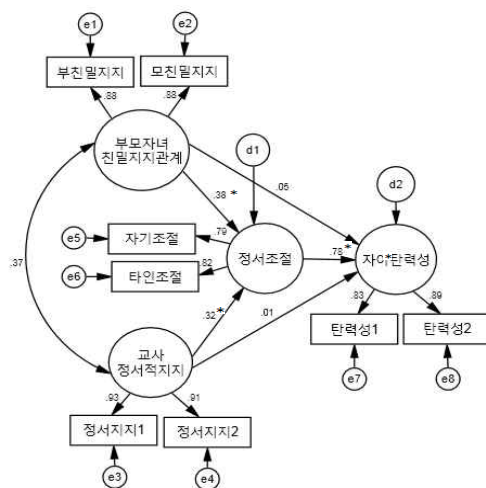


그림 3. 초기연구모델의 모수치 추정 결과

* $p < .05$

를 추정하고 모수치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

이 부모-자녀 친밀·지지관계 → 아동의 자아탄력성, 교사의 정서적 지지 → 아동의 자아

표 2. 구조회귀모델의 모수치 추정 및 통계적 유의성 검증 결과

(N = 669)

변 인	비표준화 계수	S.E	C.R	p	표준화 계수
직접효과					
부모-자녀 친밀·지지 관계 → 아동의정서조절	.22	.03	8.23*	.002	.38
교사의 정서적 지지 → 아동의정서조절	.40	.06	7.17*	.002	.32
부모-자녀 친밀·지지 관계 → 아동의자아탄력성	.03	.03	1.24	.21	.05
교사의 정서적 지지 → 아동의자아탄력성	.02	.05	.32	.74	.01
아동의 정서조절 → 아동의자아탄력성	.82	.06	13.80*	.002	.78

* $p < .05$.

탄력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초기 연구모델에서 이 두 경로를 삭제한 수정 연구모델을 설정하고 이를 초기 연구모델과 비교 평가하였다.

4. 수정모델의 부합도 및 모수치 추정

수정모델과 초기연구모델을 비교한 결과, 표 3과 같이 초기연구모델에서 경로 2개를 삭제하여도 부합도 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할 만큼 손실을 보지 않으면서도 모델의 간명성은 좋아졌으므로 수정모델을 본 연구의 최종 연구모델로 선정하였다. 최종 구조회귀모델에서 변인들 간의 경로계수 통계적 유의성 검증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3. 수정모델과 초기 연구모델 간의 부합도 차이 검증 결과

모 델	df	χ^2	p
초기 모델	2	1.68	.41
수정 모델			

* $p < .05$.

첫째, 부모-자녀 친밀·지지 관계($B = .40$, $p < .05$)와 교사의 정서적 지지($B = .32$, $p < .05$)가 아동의 정서조절에 미치는 직접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부모-자녀 친밀·지지 관계와 교사의 정서적 지지가 높을수록 아동의 정서조절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아동의 정서조절($B = .82$, $p < .05$)이 아동의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직접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아동의 정서조절이 높을수록 아동의 자아탄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5. 최종 연구모델의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

정서조절이 부모-자녀 친밀·지지 관계와 아동의 자아탄력성 사이를, 교사의 정서적 지지와 아동의 자아탄력성 사이를 매개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그림 4와 같이 매개모델을 설정하고 매개효과를 추정한 후 유의수준 .05를 기준으로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결과는 표 5와 같다. 첫째, 아동의 정서조절은

표 4. 최종 연구모델의 모수치 추정 및 통계적 유의성 검증 결과

($N = 669$)

변 인	비표준화 계수	S.E	C.R	p	표준화 계수
직 접 효 과					
부모-자녀 친밀·지지 관계 → 아동의 정서조절	.23	.03	8.23*	.004	.40
교사의 정서적 지지 → 아동의 정서조절	.40	.06	7.12*	.004	.32
아동의 정서조절 → 아동의 자아탄력성	.87	.06	13.80*	.004	.82

* $p <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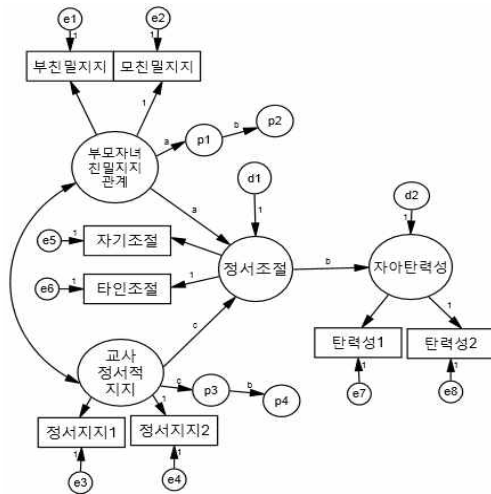


그림 4. 매개모델

아동의 자아탄력성 사이를 매개하였다($B = .35, p < .05$).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학령기 아동의 자아탄력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확인하고 부모-자녀 친밀·지지 관계와 교사의 정서적 지지가 아동의 정서조절을 매개로 아동의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아동의 자아탄력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아동의 정서조절이었으며 부모-자녀 친밀·지지관계와 교사의 정서적 지지는 아동의 자아탄력성에 직접 영향은 미치지 않았으며 아동의 정서조절을 통하여 간접적인 영향을

표 5. 매개효과 통계적 유의성 검증 결과

($N = 669$)

변 인	매개효과			95% 신뢰구간	
	B	S.E	P	Lower	Upper
부모-자녀 친밀·지지 관계 → 아동의 정서조절 → 아동의 자아탄력성	.19*	.02	.002	.14	.24
교사의 정서적 지지 → 아동의 정서조절 → 아동의 자아탄력성	.35*	.05	.002	.24	.44

* $p < .05$.

미쳤다. 아동의 정서조절은 부모-자녀 친밀·지지 관계와 교사의 정서적 지지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며 부모-자녀 친밀·지지 관계와 아동의 자아탄력성 사이를, 또 교사의 정서적 지지와 아동의 자아탄력성 사이를 매개하였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아동의 정서조절은 아동의 자아탄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런 결과는 학령기 아동의 자기조절상담 프로그램이 아동의 자아탄력성의 증진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거나(박미나, 은혁기, 2013) 초등학교학년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서적 부분을 포함한 자아탄력성의 증진 프로그램이 긍정적인 결과가 있다고 발표한 연구들(안선민, 박경일, 2016; 윤정훈, 유형근, 정연홍, 2017)과 큰 흐름을 같이 한다. 정서조절은 상황에 맞추어 융통성 있게 평정심을 유지하거나 충동 통제를 약화, 또는 강화시키는 능력인 아동의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친다. 정서조절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스트레스 상황을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넓은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새로운 대안들을 모색하는 탄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Block & kremen, 1996). 스트레스 상황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회복하기 위해 정서를 조절하여 그 상황에서 긍정적 의미를 찾는 것이다. 감당하기 힘든 일련의 일상적 사건들을 직면 했을 때는 가장 먼저 냉정함을 유지해야 한다.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한 자신의 감정 상태를 인식한 후 문제해결을 목적으로 감정을 조율하는 단계가 필요하다. 이 때 정서적으로 자기를 조절하는 기술은 어려운 상황에서 냉정함을 유지하는 능력이 된다

(Baumgardner & Crothers, 2010). Buckner 등 (2003)은 자기조절이 탄력성에 대한 가장 강력한 예언인자임을 주장하면서 부정적인 정서를 상쇄하거나 방향을 바꾸는 방법을 찾는 등의 정서적 자기조절의 높은 가치를 설명하고 있다. 정서 조절은 단순히 감정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분과 감정을 인식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한 후 실제적인 조절과 통제를 하는 것이다. 이런 정서조절 능력은 현재 한국의 학령기 아동이 처한 경쟁과 스트레스가 이어지는 환경에서 아동들의 탄력적인 삶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처럼 정서조절이 아동의 자아탄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탄력성에 기여하는 특질들은 각각의 중요성을 가지지만 그 특질들이 모여서 하나의 요소를 구성한다는 점이다. Baumgardner와 Crothers(2010)가 주장하듯이 탄력성이 일차적으로 개인의 내적 강인함에 의존한다는 것은 불완전하다. 정서조절과 같은 내적 강인함이 아동의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기는 하지만 이를 너무 강조하다 보면 어려움을 갖고 있는 아동 개개인에게 막중한 책임을 전가하게 되고 이는 또 하나의 잠재적인 위험을 갖게 하는 것이다. 일상적인 경쟁과 스트레스 상황에 놓인 한국의 학령기 아동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적 정서를 상쇄하고 긍정 정서로 방향을 바꾸어야 함을 강조하기 전에 정서조절과 아동의 자아탄력성을 중심으로 연계되는 보호요인들을 구조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보호요인은 부모-자녀 친밀·지지 관

계와 교사의 정서적 지지이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부모-자녀 친밀·지지 관계와 교사의 정서적 지지는 아동의 정서조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런 결과는 부모나 교사의 태도와 아동과의 관계, 역량이 아동의 정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여러 선행연구의 결과들과 일치한다(김혜원, 이지연, 2019; 최자은, 문수백, 2016; Ginnot, 1989). 이는 학령기 아동의 정서조절에 성인의 역량이 중요함을 의미하며 부모-자녀 사이에서 일어나는 긍정적 교류와 관계형성이 아동의 정서조절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자녀는 성장하면서 부모로부터 분리, 독립되기 시작하고 부모와의 관계도 자율과 정체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조직 되어야 하지만 부모는 여전히 자녀에게 있어 안전기지이며, 부모와의 밀접한 관계는 자녀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한다(유안진, 이점숙, 김정민, 2005). 한국과 같은 동양문화권이 서구에 비해 가족구성원간의 정서적 결속력이 강하고 가족 간의 유대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함을 고려하면 애정적 표현과 친밀한 행동 및 언어, 그리고 정서적으로 지지하는 부모와 자녀간의 친밀하고 지지적인 관계는 아동이 정서를 조절하는데 있어 근본적인 역량이 될 것이다.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는 한국의 학령기 아동들에게 학교와 교사는 제2의 가정환경이라 할 수 있다. 교사의 태도, 지도성 그리고 교사의 유머 수준이나 의사소통 유형은 각각에 따라 학급의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뿐만 아니라 아동의 발달에도 영향을 미친다(Ginnot, 1989). 또한 교사와의 관계에서 정서적으로 긍

정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아동들은 자기조절 능력과 스트레스 대처능력이 높다(Ryan et al., 1994).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교사의 여러 가지 지지 형태 중 정서적 지지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서적 지지는 신뢰, 애정, 감정이입, 친밀감을 근간으로 하며 자신이 돌봄과 사랑을 받고 있다고 믿게 하는 정보이다(박지원, 1985). 아동은 교사로부터 정서적 지지를 받고 있다고 지각할 때, 교사의 정서적 지지를 바탕으로 자신의 정서를 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조절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결과에서 정서조절의 매개효과에 대한 유의성 검증 결과 부모와 교사로부터 긍정적인 영향을 받으며 형성된 정서조절은 부모-자녀 친밀·지지관계와 아동의 자아탄력성 사이를 또 교사의 정서적 지지와 아동의 자아탄력성 사이를 연결하는 매개요인임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의 정서조절은 자기조절과 타인조절로 이루어져 있다.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은 물론 타인의 정서를 조절하면서 정서조절의 힘이 형성되는 것이다. 따라서 부모와 교사와 같은 영향력 있는 성인들과의 긍정적인 관계형성과 그들의 지지가 아동의 정서조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 힘을 바탕으로 아동의 자아탄력성이 발달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아동의 자아탄력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 및 프로그램에서 아동의 정서조절능력 향상에 집중하면 자연스럽게 아동의 자아탄력성도 향상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정서조절은 아동발달에 있어 그 자체로도 중요한 요인이지만 부모와 교사변인과 아동의 자아탄력성 사이를 매개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함으로써 그 역할이 더 확실해질

다고 볼 수 있다. 최근의 초등학교학년이나 청소년 대상으로 아동의 자아탄력성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인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프로그램의 큰 틀 안에 정서와 관련된 요소는 가지고 있으나 온전히 아동 스스로 향상 되어야 하는 프로그램들이 대부분이다(김지영, 궤노의, 2016; 안선민, 박경일, 2016; 윤정훈, 유형근, 정연홍, 2017). 그런데 정서조절이 부모나 교사와 같은 성인과 아동의 자아탄력성 사이를 매개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부모와의 긍정적 관계를 이루고, 아동이 충분히 지각할 수 있는 만큼의 교사의 정서적 지지가 우선되어야 하고 이를 통해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을 향상시켜 궁극적으로 아동의 자아탄력성을 높이는 프로그램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대한 근거는 단편적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연결되고 있는 본 연구의 모델에서도 찾을 수 있다. 본 연구 모델의 구조를 아동의 자아탄력성을 중심으로 보면 근본적인 역량강화가 필요한 환경적 부분은 부모와 자녀간의 친밀하고 지지적인 관계와 교사의 정서적 지지이고, 개인내적으로 역량강화가 되어야 하는 부분은 정서조절이다. 그리고 정서조절을 중심으로 보면 부모나 교사와 같은 환경적 영향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다각적인 관계를 고려하여 교육 현장에서는 아동의 자아탄력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개인의 정서조절 능력에 초점을 두고 이를 위해 부모는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 친밀하고 지지적인 관계 형성에 노력하고 교사는 정서적인 지지에 초점을 두고 학생들을 지도해야 할 것이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이미 형성된 근원적 관계이고, 교사와 아동의 관계는 제도적이고 임의적으로

맺어지는 과정을 통해 생성된다. 중요한 것은 아동과 관계를 맺는 성인이 아동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경쟁으로 인한 긴장과 스트레스 상황이 일반적인 한국 학령기 아동의 건강한 정신적 삶을 위해 부모와 교사의 역할이 우선 시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아동의 자아탄력성 증진에 있어 부모와 교사의 역량과 역할에 대한 관심을 확장시키고 정서조절을 기본으로 한 아동의 자아탄력성 증진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 자료로 기여할 것이다. 본 연구는 종단연구가 아니므로 본 연구의 결과에는 한계가 있으며 후속연구에서 종단적 측정을 통해 각 변인들과 아동의 자아탄력성에 대한 발달적 변화 추이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곽윤정 (1997). 정서지능의 발달 경향성과 구인 타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세영 (2014). 자아 관련 변인들과 학교적응이 아동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학회지, 35(1), 43-60.
- 김지영, 궤노의 (2016). 버추(Virtues) 활용 인성 교육 프로그램이 아동의 자아탄력성 및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어린이미디어연구, 15(3), 99-125.
- 김혜원, 이지연 (2019). 학령후기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수용적 양육태도가 분노조절에 미치는 영향: 정서인식 명확성과 적응적

- 인지정서조절 전략의 매개효과 검증. *학교 사회복지*, 45, 135-157.
- 문수백 (2009). 구조방정식 모델링의 이해와 적용. 서울: 학지사.
- 문용린 (1996). 한국학생들의 정서지능 측정연구. 서울: 삼성 사회정신건강 연구소.
- 박미나, 은혁기 (2013). 초등학교의 부적응행동 감소와 자아탄력성 증진을 위한 자기조절 상담 사례연구. *초등상담연구*, 12(3), 327-348.
- 박영아 (2013). 아동의 자아탄력성이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34(3), 179-190.
- 박지원 (1985). 사회적 지지척도 개발을 위한 일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안선민, 박경일 (2016). 생명존중 프로그램이 저소득층 청소년의 생명존중의식과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효과성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27(1), 5-32.
- 유안진, 이점숙, 김정민 (2005). 신체상, 부모와 또래애착, 탄력성이 청소년의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가정관리학회지*, 23(5), 123-132.
- 윤정훈, 유형근, 정연홍 (2017). 초등학교 고학년의 자아탄력성 증진을 위한 현실치료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청소년상담연구*, 25(1), 117-134.
- 이미경, 김성희 (2011). 초등학교 부모-자녀 관계 척도개발. *상담학연구*, 12(3), 997-1017.
- 이영주, 류진아 (2013). 아동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와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4(4), 2049-2066.
- 이은미, 박인전 (2002). 부모-자녀 유대관계와 아동의 자아탄력성과의 관계. *한국가족복지학*, 7(1), 3-24.
- 정태희 (2001). 탄력성과 정서조절에 대한 연구. *논문집*, 21, 117-138.
- 최자은, 문수백 (2016). 학령기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 관련변인들 간의 관계 구조 분석. *인간발달연구*, 25(1), 147-167.
- Baumgardner, S. R., & Crothers, M. K. (2010). *긍정심리학*. 안신호, 이진환, 신현정, 홍창희, 정영숙, 이재식, 서수균, 김비아(역). 서울: 시그마프레스. (원본 발간일, 2009)
- Block, J. H., & Block, J. (1980). The role of ego-control and ego-resiliency in the organization or behavior. In W. A. Collins (Ed), *Minnesota Symposia on child psychology*, 13, 39-101.
- Block, J. H., & Kremen, A. M.. (1996). IQ and ego-resiliency: Conceptual and empirical connections and separat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2), 349-361.
- Buckner, J. C., Zzacappa, E., & Beardslee, W. R. (2003). Characteristics of resilient youths living in poverty: The role of self-regulatory processes.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5, 139-162.
- Daniel, B., & Wassell, S. (2008). 아동의 탄력성. 강문희, 손승아, 안경숙, 김승경(역). 서울: 시그 마프레스. (원본 발간일, 2002)
- Emery, R. E., & Forehand, R. (1994). Parental divorce and children's well being: A focus on resilience. In R. J. Haggerty, M. Rutter, & L. Sherrod(Eds), *Stress, coping and development: Risk*

- and resilience in children*(pp. 64-99).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armezy, N. (1993). Vulnerability and resilience. In D. C. Funder, R. D. Parke, C. Tomlinson-Keasey., & K. Widaman(Eds.), *Studying lives through time* (pp. 337-398).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Ginnot, H. G. (2006). 교실을 구하는 열쇠. 김영철(역). 서울: 나라원(원본 발간일, 1989).
- Goleman, D. (1995). *Emotional intelligence*. New York: Bantam Books.
- Masten, A. S., Best, K. M., & Garmezy, N. (1990). Resilience and development: Contributions from the study of children who overcome adversity.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2, 425-444.
- Montemayor, R., & Eisen, M. (1997). The development of self-conceptions from childhood to adolescence. *Developmental Psychology*, 13, 314-319.
- Raykov, T. (2001). Estimation of congeneric scale reliability using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with nonlinear constraints. *British Journal of Mathematical and Statistical Psychology*, 54, 315-325.
- Ryan, R. M., Stiller, J. D., & Lynch, J. H. (1994). Representation of relationships to teachers, parents, and friends of academic motivation and self-esteem.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14, 226-249.
- Salovey, P., & Mayer, J. D. (1996). What is emotional intelligence? In P., Salovey & D. Sluyter(Eds.), *Emotional development and emotional intelligence: Implications for educators*. New York: Basic Books.
- Werner, E. E. (1993). Risk, resilience and recovery: Perspectives from the kauai longitudinal study.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5(4), 503-515.

1 차원고접수 : 2019. 04. 09.

수정원고접수 : 2019. 05. 27.

최종게재결정 : 2019. 06. 19.

Effect of Parents-children Intimacy-Support Relationship, Teacher's Emotional Support on Children's Self-Resilience: The Mediating Effect of Children's Emotion Regulation

Choi, Ja-eun

Dept. of Child Studies, Daegu Catholic University

The purpose of present study were to investigate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the related variables of school-age children's self-resilience. and to investigate the mediating effect of children's emotion regulation on parents-children intimacy-support relationship, teacher's emotional support and children's self-resilience. The participants in this study were 669 of the 5th and the 6th grade children in the region of D city.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children's emotion regulation affected directly on children's self-resilience. Second, parents-children intimacy-support relationship, teacher's emotional support affected directly on children's emotion regulation. Third, children's emotion regulation mediated between parents-children intimacy-support relationship, teacher's emotional support and children's self-resilience. These results suggest that children's emotion regulation is an important variable that direct or indirect influences the children's self-resilience. Parent-children intimacy-support relationship, teacher's emotional support are the basis for promoting individual competence, such as children's emotion regulation and children's self-resilience.

Keywords: children's self-resilience, parents-children intimacy-support relationship, teacher's emotional support, children's emotion regulation